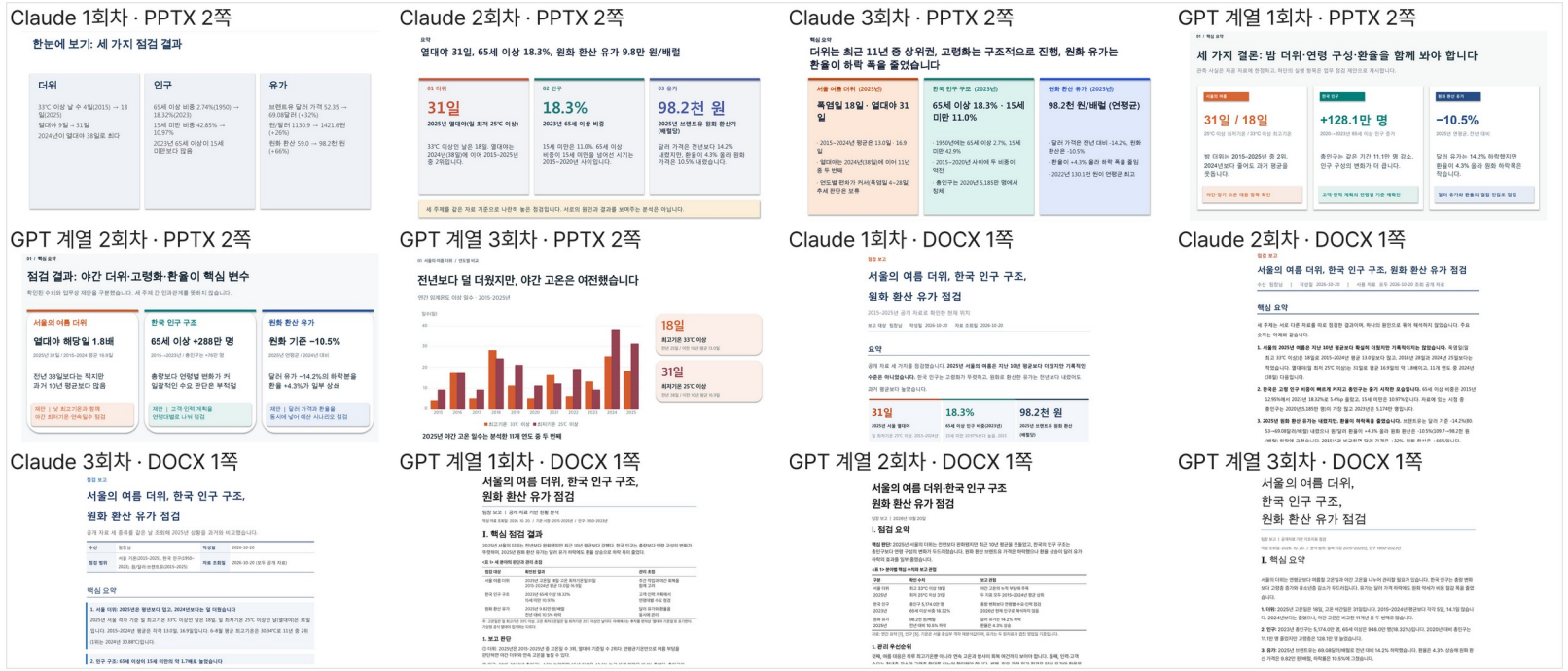
AI가 만든 문서, 보내기 전 점검

같은 요청으로 받은 12개 파일



도 1. 같은 요청으로 받은 PPT 2쪽과 Word 1쪽. 이번에 새로 만든 비교 예시다. (출처: 조건 없이 받은 첫 결과 12개)

- PPT 6개와 Word 6개를 같은 요청으로 받았다. 숫자는 맞았다.
- 그런데 모양은 제각각이어서, 그대로 보내기는 어려웠다.
- Claude와 GPT 계열에서 종류별로 3개씩 받았다. 서식 조건은 붙이지 않았다.

평소 방식과 이번 작업

평소 쓰는 방식

ChatGPT와 Claude로 PPT와 Word를 만든다. 내부 보고, 의뢰자 공유, 대외 보고에 쓴다.

요청만 해서는 받은 파일을 그대로 보내기 어렵다. 쓸 때마다 서식을 다시 고친다.

보고자료에서는 디자인이 단정한지, 차트가 읽히는지를 본다.

이번에 한 일

공개 자료 CSV 5개로 같은 요청을 했다. PPT는 10장, Word는 6쪽 안팎으로 부탁했다.

서식 조건은 붙이지 않았다. 받은 첫 결과를 그대로 보관했다.

Claude와 GPT 계열에서 PPT와 Word를 3개씩 받아, 종류별로 6개를 모았다.

- 같은 요청을 여러 번 했을 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는지 본다.
- 업무 생산성 분야, 그중 보고 장표를 만드는 일에서 시험했다. 비교 파일은 이번에 새로 만든 예시이며 과거 업무 결과가 아니다.
- ChatGPT·Claude 웹 화면에서의 결과는 따로 시험하지 않았다.

수치 대조 결과

숫자는 맞았다.

PPT 6개와 Word 6개의 값을 원자료와 맞춰 봤다. 데이터 값이 어긋난 곳은 없었다.

대조한 범위는 원본 차트의 수치 캐시, 행·열을 고정 연결한 표, 그림에 적힌 표시 라벨 43개, 본문 숫자다. 파일 안의 값과 실제 화면도 함께 열어 봤다.

그런데 이 파일을 그대로 보내기는 어려웠다.

걸리는 점은 숫자 밖에 있었다. 다음 쪽부터 하나씩 본다.

그대로 보내기 어려웠던 점

조건 없이 받은 PPT 6개를, 조건을 붙여 다시 만든 보고서와 나란히 놓았다.

	조건 없이 받은 PPT 6개	조건을 붙인 보고서
문장으로 쓴 제목	**10장 중 7–10장**	**0장**
강조색	**3가지 이상**	**1가지**
본문 글자 크기	**12–16pt**	**18pt**
가로 격자선이 있는 차트	**파일마다 4–7개**	**0개**

왼쪽 열의 결과는 6개 모두 같은 경향이었다. 본문 글자 크기는 장마다 모은 글자 크기의 가운데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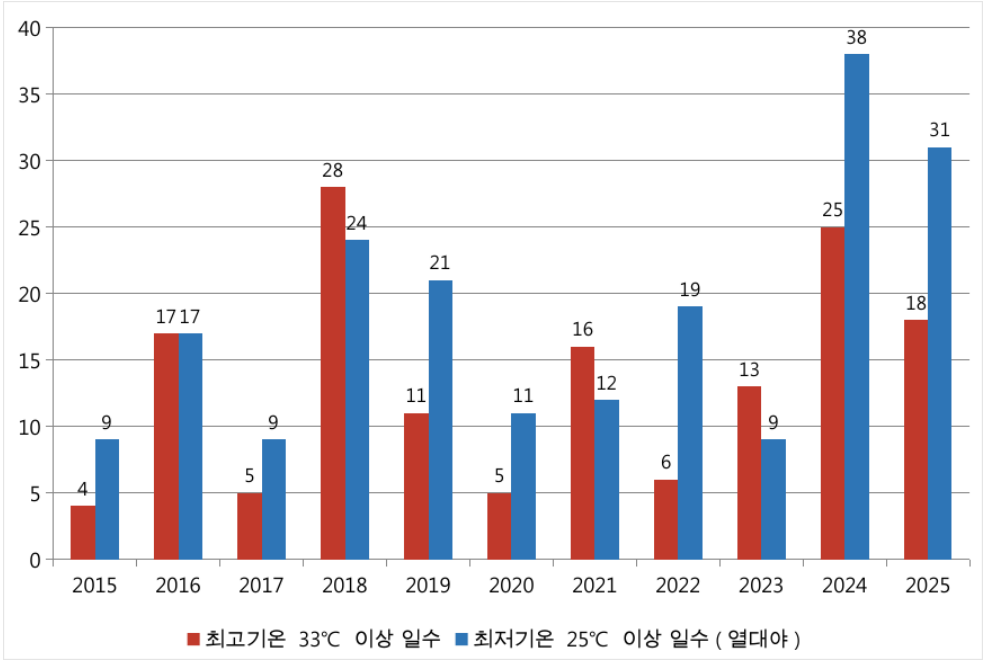
제목 속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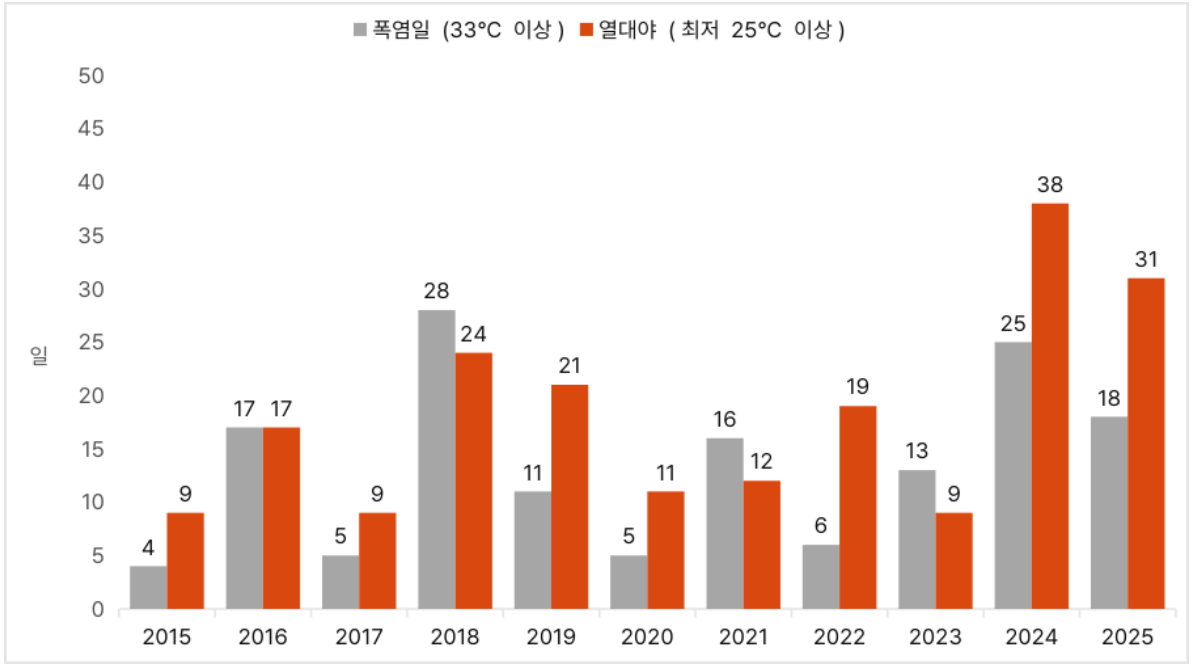
도 2. 왼쪽은 조건 없이 받은 PPT, 오른쪽은 조건을 붙인 보고서 (출처: 각 PPT의 제목)

- PPT 6개 모두, 10장 중 7장 이상이 문장 제목이었다.
- '최근 많아졌다'는 판단은 AI가 쓴 것이다.
- 자료와 맞는지는 보내는 사람이 확인한다.

갈라진 강조색



도 3. 조건 없이 받은 PPT, Claude 1회차 3쪽. 두 계열에 서로 다른 강조색을 썼다. (출처: 조건 없이 받은 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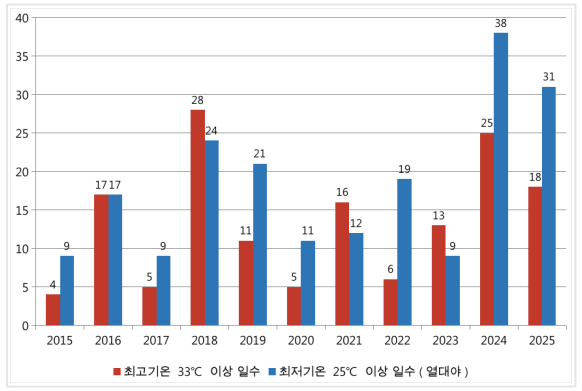


도 4. 조건을 붙인 보고서 3쪽. 한 계열만 강조색이다. (출처: 조건을 붙인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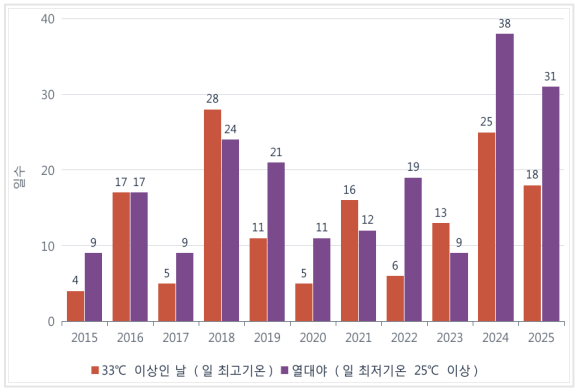
- 2015–2025년 연도별 폭염일과 열대야다.
- 6개 모두 강조색이 3가지 이상이었다.
- 조건을 붙인 보고서는 1가지다.

같은 요청, 달라진 색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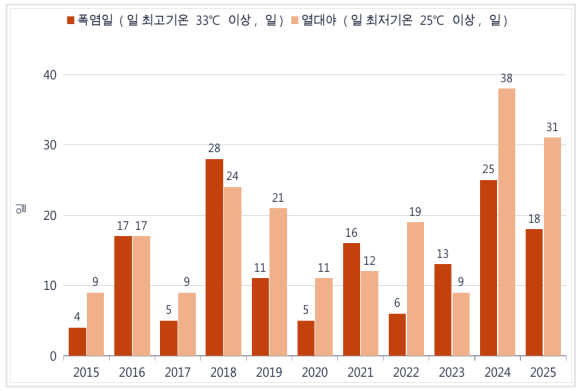
연도별 폭염일·열대야 장 6개다. 모두 조건 없이 받은 첫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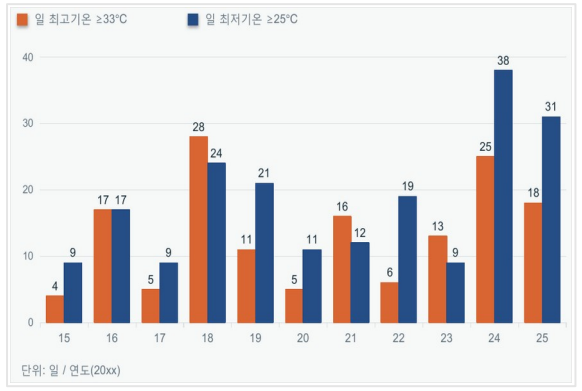
도 4-1. Claude 1회차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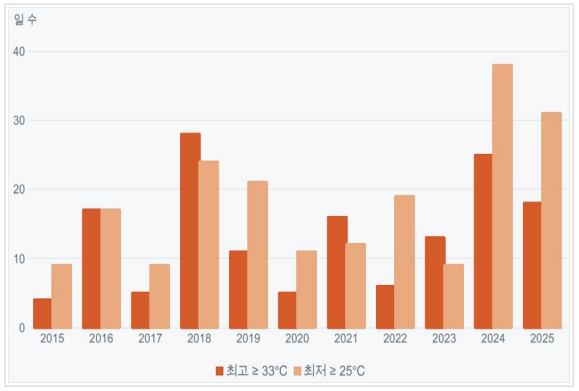
도 4-2. Claude 2회차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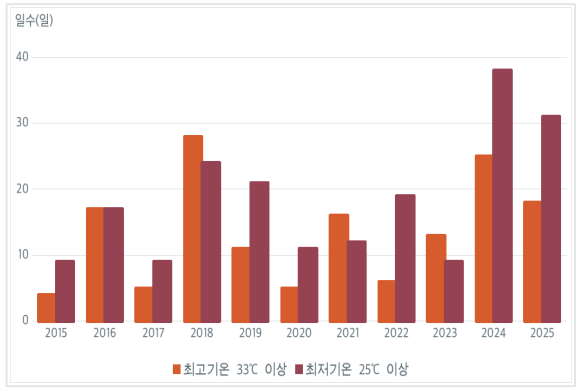
도 4-3. Claude 3회차 3쪽



도 4-4. GPT 계열 1회차 3쪽



도 4-5. GPT 계열 2회차 3쪽



도 4-6. GPT 계열 3회차 2쪽

같은 요청, 달라진 쪽 수

Word는 6쪽 안팎으로 요청했다.



점검 보고

서울의 여름 더위, 한국 인구 구조,
원화 환산 유가 점검

2015–2025년 공개 자료로 확인한 현재 위치

보고 대상 팀장님 작성일 2026-10-20 자료 조회일 2026-10-20

요약

공개 자료 세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2025년 서울의 여름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더웠지만 기록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인구는 고령화가 뚜렷하고, 원화로 환산한 유가는 전년보다 내렸어도 과거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31일	18.3%	98.2천 원
2025년 서울 열대야	65세 이상 인구 비중(2023년)	2025년 브렌트유 원화 환산 (배럴당)
일 최저기온 25℃ 이상. 2015–2024년 평균 16.9일, 11개 연도 중 2위	15세 미만 10.97%보다 높음. 2015년은 12.95%였음	전년 대비 −10.5%, 2015–2024년 평균보다 +22.5%

도 5-1. Claude 1회차, 9쪽 중 1쪽 위쪽



서울 여름 더위 · 한국 인구 구조 · 원화 환산 유가 점검

점검 보고

서울의 여름 더위, 한국 인구 구조,
원화 환산 유가 점검

공개 자료 세 종류를 같은 날 조회해 2025년 상황을 과거와 비교했습니다.

수신	팀장님	작성일	2026-10-20
점검 범위	서울 기온(2015–2025), 한국 인구(1950–2023), 원/달러·브렌트유(2015–2025)	자료 조회일	2026-10-20 (모두 공개 자료)

핵심 요약

1. 서울 더위: 2025년은 평년보다 덥고, 2024년보다는 덜 더웠습니다

2025년 서울 격자 기준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날은 18일, 일 최저기온 25℃ 이상인 날(열대야)은 31일입니다. 2015–2024년 평균은 각각 13.0일, 16.9일입니다. 6–8월 평균 최고기온은 30.34℃로 11년 중 2위(1위는 2024년 30.88℃)입니다.

2. 인구 구조: 65세 이상이 15세 미만의 약 1.7배로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12.95%에서 2023년 18.32%로 올랐고, 15세 미만은 13.76%에서 10.97%로 내렸습니다. 총인구는 2020년 5,185만 명에서 2023년 5,174만 명으로 소폭 줄었습니다(2023년은 추정치).

도 5-2. Claude 3회차, 7쪽 중 1쪽 위쪽



경영환경 점검 | 2026. 10. 20.

서울의 여름 더위·한국 인구 구조
원화 환산 유가 점검

팀장 보고 | 2026년 10월 20일

I. 점검 요약

핵심 판단: 2025년 서울의 더위는 전년보다 완화됐지만 최근 10년 평균을 웃돌았고, 한국의 인구 구조는 총인구보다 연령 구성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원화 환산 브렌트유 가격은 하락했으나 환율 상승이 달러 유가 하락의 효과를 일부 줄였습니다.

<표 1> 분야별 핵심 수치와 보고 관점

구분	확인 수치	보고 관점
서울 더위 2025년	최고 33℃ 이상 18일 최저 25℃ 이상 31일	야간 고온의 누적 부담에 주목 두 지표 모두 2015–2024년 평균 상회
한국 인구 2023년	총인구 5,174.0만 명 65세 이상 비중 18.32%	총량 변화보다 연령별 수요·인력 점검 2026년 현재 인구로 해석하지 않음
원화 유가 2025년	98.2천 원/배럴 전년 대비 10.5% 하락	달러 유가는 14.2% 하락 환율은 4.3% 상승

자료: 연간 요약 [1], 인구 [5]. 기온은 서울 중심부 격자 재분석값이며, 유가는 두 원자료가 겹친 영업일 기준입니다.

1. 관리 우선순위

첫째, 여름 대응은 하루 최고기온뿐 아니라 연속 고온과 밤사이 회복 여건까지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인력·고객 수요는 청년층 감소와 고령층 확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원유 관련 원가 점검은 달러 유가와 환율을 함께 보되 실제 조달비·전기요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2. 점검 범위와 구성

도 5-3. GPT 계열 2회차, 6쪽 중 1쪽 위쪽

6쪽 3개, 7쪽 2개,

9쪽 1개였다.

PPT는 10장으로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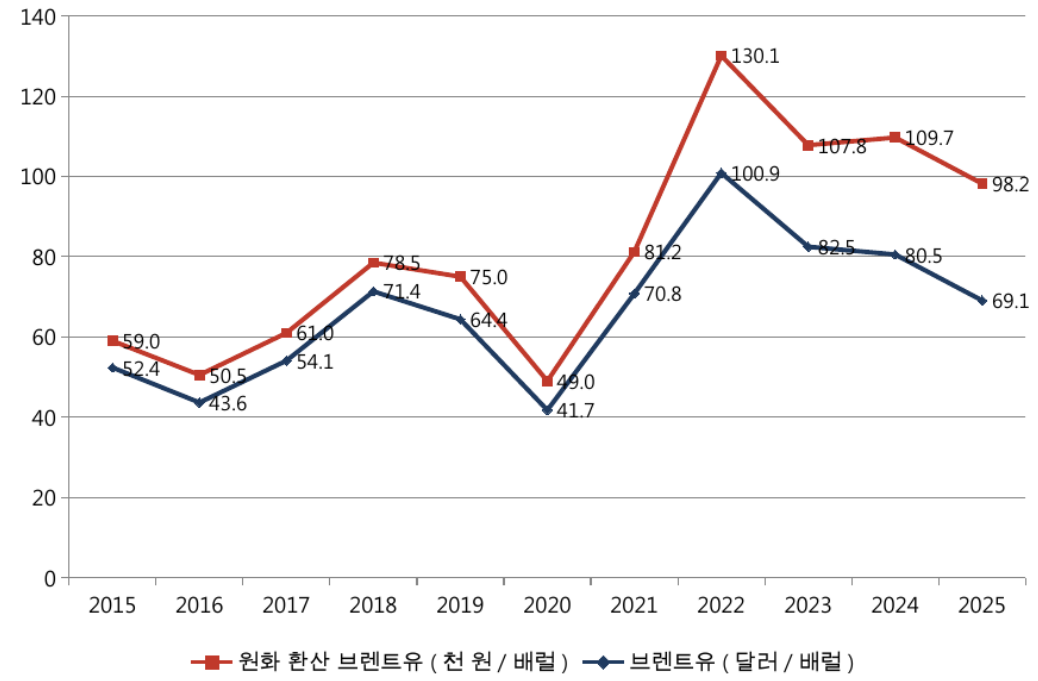
둥근 모서리 도형은 0개인 파일도,

30개인 파일도 있었다.

쓸 때마다 서식을 손봐야 했다.

조건 없이 받은 Word 1쪽의 위쪽 부분이다. 쪽 수는 파일 전체 기준이다.

한 축에 놓인 다른 단위



- 2022년 정점: 100.87달러, 130.1천 원/배럴
- 2025년: 69.08달러(2022년 대비 -32%), 98.2천 원(-25%)
- 원/달러 연평균 1130.9원(2015) → 1421.6원(2025)
- 2015→2025년 달러 가격 +32%, 원화 환산 +66% — 환율 상승이 격차를 만듦

도 5. 천 원/배럴과 달러/배럴이 같은 세로축을 쓴다. (출처: Claude 1회차 7쪽)

- PPT 6개 중 1개에서 나왔다. 나머지 5개는 2015=100 지수로 단위를 맞췄다.
- 숫자는 맞다. 다만 두 선의 높이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 6개 중 1개인 드문 경우다.

요청 조건과 보내기 전 점검

요청에 붙이는 조건

1. 강조색은 한 가지만 쓴다.
2. 제목은 주제 이름으로 쓴다.
3. 본문은 12pt 이상으로 쓴다.
4. 그래프는 차트 개체로 만들고 격자선을 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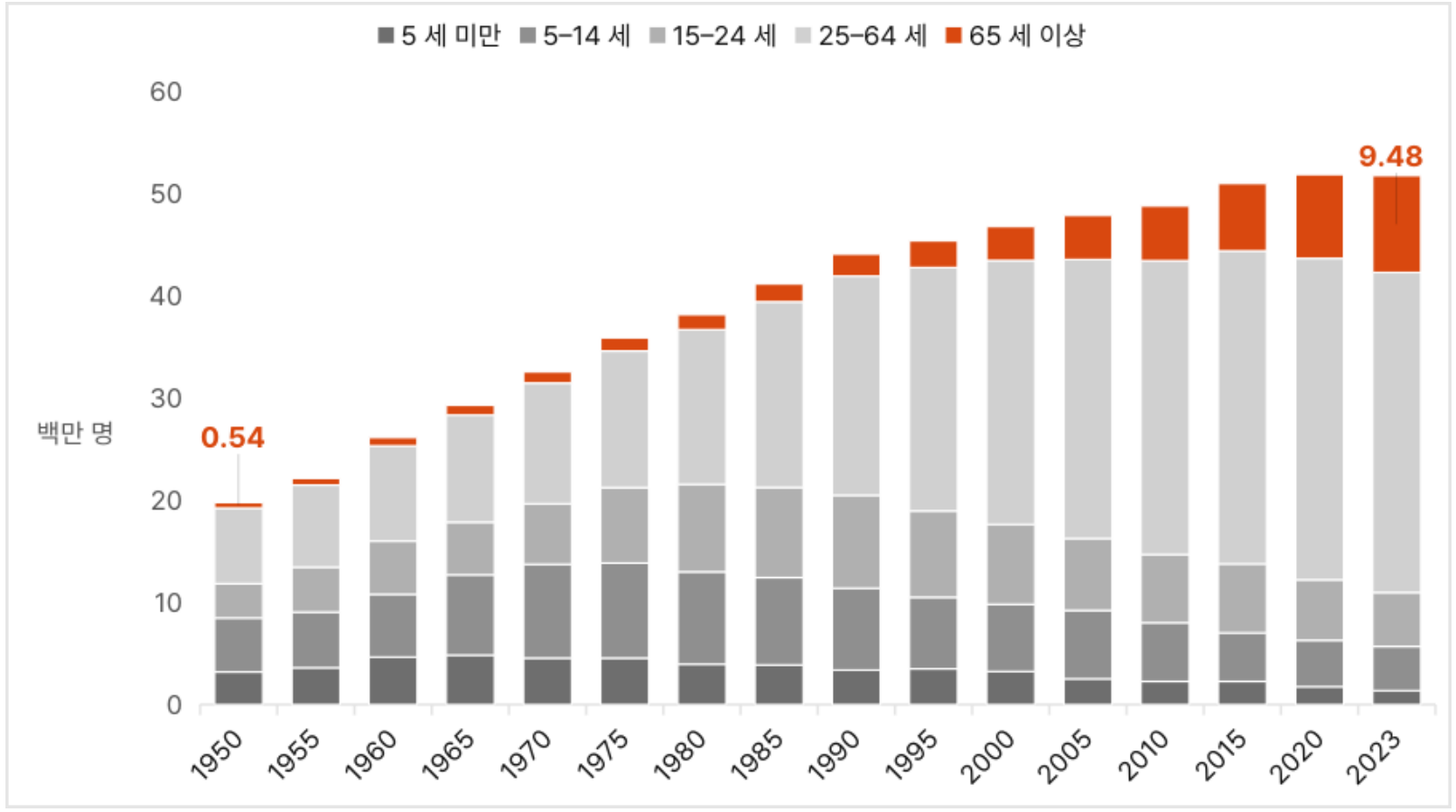
전체 조건은 첨부 5의 요청문에 있다.

보내기 전 다섯 가지 점검

숫자	본문과 차트의 값을 원자료와 맞춘다.
출처	제공처와 자료 이름이 적혀 있고, 실제로 그 자료인지 본다.
원인	결론과 원인 설명을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본다. 사실, 원인 설명, 업무 제안을 나눠 읽는다.
단위	숫자의 단위와 차트 축이 같은 기준인지 본다.
읽는 사람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그 사람이 보는 크기에서 읽히는지 본다.

점검 카드(첨부 3)에 같은 확인을 체크 문항으로 적었다.

조건을 붙인 결과



도 6. 한국 연령대별 인구, 1950–2023년. 첨부 4의 6쪽. (출처: 조건을 붙인 보고서)

- 같은 자료에 조건을 함께 붙여 다시 요청했다.
- 강조색은 한 가지다.
- 제목은 주제 이름, 본문은 18pt다.
- 강조색은 65세 이상 한 계열에만 썼다.

붙인 조건과 결과

구분	요청에 함께 붙인 조건
디자인	밝은 배경, 강조색 한 가지, 글꼴 하나다.
장 구성	표지, 핵심 수치, 그래프, 표, 출처로 나눈다.
글	제목은 주제 이름, 본문은 짧은 문장이다.
그래프	차트 개체로 만들고 단위와 값 표시를 정한다.
확인	모든 장의 화면과 원자료 수치를 대조한다.

표 1. 요청에 함께 붙인 조건. 출처: 첨부 5의 요청문

- 조건을 붙인 보고서 10장은 강조색 1가지, 가로 격자선 0개다.
- 제목 10장이 모두 주제 이름이고, 본문 글자는 18pt다.
- 요청 조건은 본문 12pt 이상이다. 결과로 18pt가 나왔다.
- 조건 하나하나의 효과는 따로 시험하지 않았다. 여러 조건을 한꺼번에 붙인 결과를 쟀다.

이 방법을 쓰는 순서

요청할 때 조건을 붙이고, 보내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한다.

요청할 때	요청문 끝에 조건 네 가지를 붙인다. 첨부 5의 요청문을 복사해 쓰면, 누가 요청해도 같은 조건으로 받는다.
보내기 전	받은 파일은 다섯 가지 점검으로 본다. 제목에 섞인 판단은 이때 걸러 낸다. 점검 카드(첨부 3)는 옆에 둔다.

AI는 초안을 만들고, 보낼지는 사람이 정한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이번에 확인한 것

PPT 6개와 Word 6개의 숫자를 원자료와 맞춰 봤다.

파일 안의 값과 실제 화면을 함께 열어 봤다.

서식이 반복되는 정도와 조건을 붙인 보고서의 값을 쟀다.

확인하지 못한 것

ChatGPT·Claude 웹 화면에서 받은 결과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다른 업무에서의 효과

읽는 사람의 반응, 조건 하나하나의 효과

자료 출처와 조회일

기온·강수는 Open-Meteo ERA5의 서울 중심부 격자 자료다.

환율·유가는 FRED의 DEXKOUS·DCOILBRENTEU를 썼다.

인구는 유엔 세계인구전망 2024를 Our World in Data가 가공한 자료다.

조회일은 2026-10-20이다. 인구는 2023년까지의 추정치다.

비교 파일은 이번에 새로 만든 예시다. 보내는 문서의 최종 확인은 사람이 맡는다.

그림 차트의 모든 점 검산은 남아 있다. 기온은 재분석 격자값이며, 시장 평균은 두 자료가 겹친 날 기준이다.